

News

4대 은행 주력 예금금리도 年 3.5% 넘어섰다

서울경제

4대 은행의 주력 예금 상품 금리 모두 연 3.5% 넘어서… 우리은행, 대표 예금 상품인 WON플러스 예금 최고 금리인 3.81%까지 끌어올려… 은행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예금 상품과의 금리 차 격차 좁아져… 13일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예금 평균 금리는 3.67%

인뱅, 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대출 금리 '인하 경쟁'

서울경제

인터넷전문은행들, 전세대출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 중… 케이뱅크가 먼저 금리 낮추면 카카오뱅크가 뒤이어 금리 인하하는 모습 반복 패턴 경쟁으로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4.7%인 전국 전월세전환율(6월 기준)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업계에서는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으로 풀이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받는다

연합뉴스

6대 은행과 주금공, 오늘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받아…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 적용 신청기간은 주택가격마다 달라… 신청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상이… 주금공, 2차까지 신청받고도 접수 물량 25조원 미달시 신청대상 주택가격 상향해 추가 신청 예정

'농협·신한·우리·BNK' 회추위 계절이 돌아왔다

비즈니스워치

올해 12월 31일기준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임기 종료… 내년 3월에는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지원 BNK금융지주 회장 임기 종료 금융지주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조만간 출범 예정… 뉴페이스 혹은 현 회장들의 연임 가능할지 관심 집중

미래에셋생명, 마이데이터 경쟁 가세… 이르면 이달 인가

뉴스토마토

미래에셋생명, 이달 중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받을 것으로 보여… 본인가 획득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 계획 준비 중… 본인가 받을 시 교보와 KB손보에 이어 세번째 고객 편의 제고 서비스 개발에 마이데이터 활용할 방침… 향후 헬스케어, 자산관리 서비스 등 사업영역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우체국보험도 '보험대리점' 통해 가입하나… 6년 만에 도입 재추진

조선비즈

우체국예금보험, 앞으로 GA를 통해 가입 가능할 길 열릴 수 있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위해 민간 GA 채널 도입을 6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을 연말까지 관련 활성화 방안 내놓을 방침… 우선 보험업법상 법률적 문제 없는지 검토부터 착수 예정… 실제 도입은 금융당국과의 협의 이후 가시화로 시간 필요

외국인 두달째 "韓주식 사자"… 4조 순유입

디지털타임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올초부터 5개월 연속 빠져나가다가 7월 1억 6,000만달러로 순유입으로 돌아선 뒤 2개월째 순매수 기조 유지 중 반면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은 13억 1,000만달러 순유출 발생… 2개월 만에 첫 순유출 기록… 차익거래 유인 감소 및 만기 도래 규모 증가해 채권 자금이 순유출로 전환

檢 "루나도 증권" 자본시장법 첫 적용… 권도형 체포영장 받았다

중앙일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암호화폐 루나가 투자계약증권, 미러토كن은 파생결합증권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 이에 자본시장법 규정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각종 규제 위반했다고 판단… 형사사건에서 암호화폐 자체에 증권성 적용한 사례는 드물어… 업계 파장 여부 촉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